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1

#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 전국체전 종합우승 영광 재현위해 팀워크 다지고 정신력 강화 기회로

### ■ 광주시 검도회

“2010년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

북구청(감독 오치삼)·조선대(감독 김현준)·서석중(감독 이강산)·서석고등학교(감독 정동진)·설원여고(감독 이진영) 등 광주를 대표하는 검객들이 새 봄을 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던진 출사표다.

광주 검도는 지난 2007년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후 2년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광주검도는 2010년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며 옛 영광을 재현했다. 지난해에는 종합3위로 약

간 주춤 했지만 올해 다시 종합우승을 위해 죽도를 고쳐 잡았다.

최용훈 광주시검도협회장의 과격적인 지원아래 중·고·대·일반부 코치와 감독들은 5박 7일 태극 해외연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선수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올 대회출전의 전략 수립을 마쳤다. 여기에 김종필 부회장, 정동진 협회 전무이사를 주축으로 선수단들도 팔팔 똘똘 있어 2년만에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광주시 검도회가 매년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빠지지 않고 출전하고 있는 것은 선수단의 동계훈련 성과 점검과 올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정신력 무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동진 전무이사는 “각 학교별로 동계훈련을 하느라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 통해 선수단 팀워크를 다지고 올 시즌을 대비하는 정신력 강화의 시간이 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일 러닝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있어 하프, 풀코스 도전에 대한 열망도 크다. 하지만 불부터 각종 대회가 이어지면서 부상에 대한 위협때문에 5km에만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하게 된다.

광주검도가 전국최고의 팀으로 자리잡게 된 데는 초동부터 일반부까지 진용을 갖추고 있어 선수들의 연계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저학년부터 대학·일반부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어느 팀보다



조선대학교 검도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광주검도회 소속 검객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팀워크와 호흡이 잘 맞는다. 코치와 감독들도 오랫동안 선수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최적의 훈련을 통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광주검도만의 강점이다.

올 시즌 광주검도를 이끌 일반부 김용철·박상수 선수는 “후배들과 함께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각오를 다지며 뛰겠다”고 말했다.

서석고 주장 김동민(3년)은 “매년 3·1절 마라톤대회는 광주검도회 소속 선·후배들이 모두 모여 종합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달리는 전통적 행사로 자리잡

았다”고 밝혔다. 서석고 고현준(2년)은 “중학교때부터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이번 대회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팀	선수(명)	평균연봉(원)
삼성	53	1억 1768만
SK	55	1억 798만
두산	49	9896만
한화	53	9438만
KIA	51	9427만
롯데	53	8868만
LG	54	8167만
넥센	52	7771만
NC	5	2740만
계	425	9441만

※ 신인(90명), 외국인 선수(15명) 제외.

최고	최소
이종범(KIA)·42세	나 이(형범)(NC)·18세
니퍼트(두산)·203cm	키 김선빈(KIA)·165cm
최준석(두산)·115kg	몸무게 김상수(삼성) 등 3명·68kg

## 2012 프로야구 선수 분석

# 억대 연봉 112명 ... KIA 18명

NC 포함 9개 구단 총 530명 ... 투수 251명 47%  
 KIA 이종범 42세 최고령·김선빈 165cm 최단신

‘프로야구 최고령 이종범, 최단신 김선빈’ 한국야구위원회가 8일 2012년 프로야구 9개 구단의 소속선수를 확정해 발표했다.



▶ 최고령 선수 KIA 이종범은 42세. NC 신인 이형범과는 24살 차이가 난다.

올 시즌부터 퓨처스리그에 참여하는 NC를 포함한 9개 구단의 소속선수는 총 530명으로 지난해 484명 보다 46명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기존선수 425명, 신인선수 90명, 외국인 선수 15명으로 감독 및 코치 177명을 더하면 전체 인원은 707명이다. 투수가 전체 47.4%인 251명으로 가장 많고 내야수 123명(23.2%), 외야수103명(19.4%), 포수53명(10%) 순이다.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425명의 평균 연봉은 9441만원으로 지난해 8704만원 보다 8.5%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승팀 삼성이 1억1768만원으로 평균연봉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준우승팀 SK가 1억79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KIA는 두산(9896만원)과 한화(9438만원)에 이어 평균연봉 5위(9427만원)에 올랐다.

한화는 올 시즌 최고연봉선수가 된 해외파 김태균(15억원)과 FA 송진영(3억원) 등의 영입으로 올 시즌 평균연봉이 5376만원에서 9438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1억원 이상을 받는 억대연봉 선수는 총 1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KIA는 팀내 최고 연봉자인 이병호(4억9500만원)와 입단 5년 만에 1억 고지를 넘은 김선빈(1억1000만원) 등 총 18명이다.

두산 김선우가 5억 5000만원으로 투수 연봉킹에 올랐고, 포수는SK 박경완(5억원), 2루수는 SK 정근우(3억 1000만원), 3루수는KIA 이병호, 유격수는 SK 박진만(2억 5000만원), 외야수는 넥센 이택근(7억원)이 포지션별 연봉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LG 불펜의 핵으로 활약했던 2년차 투수 임찬규는 24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연봉이 상승하면서 올 시즌 최다 인상률(233.3%)을 장식했다. 최고 인상 금액은 4억3000만원으로 친정팀 넥센으로 복귀한 이택근이 기록했다.

KIA 좌완 심동섭은 2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연봉이 뛰어오르면서 팀내 최다 인상률(200%)과 함께 올 시즌 3년차 최고 연봉자가 됐다.

등록 선수의 평균 연령은 26.7세로 지난해보다 0.1세 높아졌으며, KIA 이종범(1970년8월15일생)이 만42세로 최고령 선수가 됐다. 최연소는 만 18세의 NC 신인 이형범(1994년2월27일생)으로 이종범과 24살 차이가 난다.

평균 신장은 182.6cm, 평균 체중은 84.3kg으로 지난해



▶ 프로야구 최단신 KIA 김선빈의 신장은 165cm.

대비 각각 0.4cm, 0.8kg 감소했다. 203cm인 두산 외국인 투수 니퍼트는 팀 동료 장민익(207cm)의 군입대로 올 시즌 최장신 선수가 됐고, KIA 김선빈은 165cm로 최단신 자리를 지켰다. 또 두산 최준석은 115kg으로 최중량 선수가 됐다. 삼성의 우동균과 김상수, SK 김성현은 68kg으로 최경량 선수로 등록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넨,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빔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어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 비뒤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사거리 | 임신방직 | 하남 | 신원사거리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루마스타급 50% 특별할인 행사**

▶ 전면 179,000원 ⇒ 85,000원  
 ▶ 후측면 239,000원 ⇒ 145,000원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알,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